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을 마치고

Epilogue of 2012 Opening Ceremony of KIRA Convention

이창섭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장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발대식(發隊式)이 대회개막 5개월여를 앞두고 지난 5월 11일 광주 무등산 자락의 신양파크호텔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금년 대회의 주관자인 광주광역시 건축사회(회장 심상봉) 주관으로 열린 발대식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국토해양부 도시국장,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등 외빈과 본 협회 강성익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회장이 축하차 참석하였고 광주광역시의 전회원이 동참하였다. 역대 건축사대회 중 최초로 거행된 발대식은 성공적 개최 결의를 다짐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발대식의 순서 하나하나가 좋았지만 특히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역대 회장이 맡아 후배 회장인 집행위원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받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또한 이날 위촉된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노력봉사와 아울러 대회 기금까지 기부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광주건축사회의 단합과 결집은 발대식으로 인하여 더욱더 다져졌으며, 어느 대회보다 완벽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건축사대회는 건축사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승화시켜야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기능을 발휘한다. 대회도 주관자의 열의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주관자의 열의는 더할 나위 없으니 이를 참관한 각 시도회장이 느낀 대로 회원들께 전달한다면 많은 회원이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건축사대회를 통해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鼓舞)해 왔고 동질감과 유대감을 돈독히 하며 단합을 다져왔으며 이로써 무엇이든 하면 될 것 같은 희망을 보아왔다. 그러하기에 막대한 비용과 전국에서 이동하는 불편을 무릅쓰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대회의 이 같은 뜨거운 열기와 단합의 폭발적 에너지는 행사 때에만 존재하고, 건축사의 어려운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였다는 생각이다.

우리 건축사들은 절반 이상이 1년에 단 한건의 수주도 못하고, 90%가 빈곤에 허덕이며 전문자격자로서의 품위 유지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활도 영위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사무소를 유지하기 어려워 소위 ‘핸드폰 건축사’가 등장한지 이미 오래고,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더하여 소수의 매머드급 사무소만 더욱 커지는 피라밋 구조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9명의 건축사 모두가 외국인으로 계약되는 수모를 당한 바 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안정된 삶의 구현을 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지지부진하고 소수의 임원이나 위원들만 노력할 뿐 전 회원의 힘과 능력을 결집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인 이창섭 건축사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양대학교 Ubiquitous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서울시건축사회 간사 및 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및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대한건축사협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정유비스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서 건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국가나 기업이나 획기적인 단계의 비상은 강력한 리더십과 단합된 펠로우십이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하였다. 우리도 이 역경을 헤쳐 나가 진정한 전문자격자로서의 위상(位相)을 회복하려면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결집된 힘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회의 성과는 반쪽짜리에 머무른 것이 된다. 이제 우리는 건축사대회의 열기를 건축사의 삶을 향상하는데 초석으로 써야 한다. 이것이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는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10월 25일, 가을의 푸른 하늘 속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질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구호처럼
 '신나게! 멋지게! 친하게!' 결판진 잔치를 벌여보자.
 그 속에서 결집된 무한한 에너지로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내일을 설계하자!

국민과 함께하는 대회로 발전시켜야

건축사대회는 한발 더 나아가 건축사만의 축제가 아닌 전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진화해야 한다. 문화의 달 10월이 되면 우리는 본 협회를 필두로 각 시도별로 수많은 건축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그림, 사진, 레고집짓기부터 문화대상을 비롯한 각종 건축전, 건축영화제, 건축산업전시회 등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있다. 이제 이들을 건축사대회와 연계하여 '부동산과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건축을 '남들에게도 보여짐을 당하는 예술로서의 건축'으로 생각을 바꿔놓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은 단번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꾸준히 차근차근 시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민도(民度)가 높아지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없고, 건축사의 대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국민의 건축관이 바뀌어야만 주택 한 채만 설계하여도 1년을 생활할 수 있는 선진국형 건축사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

국민의 건축을 보는 눈과 생각을 바꾸는 일은 국가 사회적으로 문화국가의 달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공익적 효과와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전문가격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두 마리 토기를 잡는 초석이 될 것이다.

대회주제 '時+文=建築, 건축사 시대와 삶을 짓다'가 의미하는 것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사람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축사, 삶을 짓다'란 금년 건축사대회의 주제는 우리 건축사들뿐만 아니라 건축의 본질을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도 더없이 좋은 주제이다.

광주건축사회가 대회 유치를 확정된 후 공모와 여러 차례에 걸친 토의 끝에 정한 본 주제는 세계적으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의 작년도 대회주제(大會主題)가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의 건축이었던 점과 관련지어 볼 때 그 시너지 효과도 또한 매우 크다 하겠다.

건축은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 등이 담겨 있는 거대한 그릇이다. 그러하기에 시(時)는 한 시대의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고 작품을 만들어 내는 순간순간이기도 하다. 건축은 건축사에 의하여 설계되지만 건축주의 역할이 있게 마련이니 건축물은 시대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文)은 인문학인 문(文)·사(史)·철(哲)의 선두에 서왔으며 문학뿐만 아니라 광의적으로 예술 전반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회원들에게는 통섭의 시대를 맞아 예술전반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께는 예술로서의 건축을 알리기 위해서는 더 없이 좋은 주제라 생각한다.

신나게! 멋지게! 친하게!

빛고을 광주는 예향(藝鄕)의 도시이다. 그림이 있고 소리가 있고 건축이 있다. 또한 별미들이 가득하다. 이에 더하여 1박 2일의 대회기간을 알차게 준비하는 광주회원들이 있다.

10월 25일, 가을의 푸른 하늘 속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질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구호처럼 "신나게! 멋지게! 친하게!" 결판진 잔치를 벌여보자. 그 속에서 결집된 무한한 에너지로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내일을 설계하자. 

